

지역 소식통

황정수 무주군수, 농번기 공동급식 요대마을 찾아

무주군 황정수 군수가 농번기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무주읍 요대마을을 찾았다. 안성면 사교마을과 설천면 이남, 적상면 성도, 부남면 유평마을도 차례로 방문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방문한 요대마을은 29농가 48명이 거주하며 22명이 공동급식을 하고 있는 곳으로, 황 군수 일행은 같이 식사를 하며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농번기 어려움과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주민들은 "일손이 부족할 때는 점심을 준비하는 것도 벅할 때가 있다"며 "공동급식을 하고부터는 그런 부담도 줄고 먹으면서 정도 든다고 주민들끼리도 훨씬 돈독해지는 것 같다"고 전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요대마을을 비롯해 무주읍과 설천면, 적상면, 안성면, 부남면의 20개 마을에 8,000만 원을 지원(조리원 인건비, 부식비)해 공동급식을 진행(상·하반기로 나누어 총 40일)하고 있다.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삼각농정에 실현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지난해(11개 마을, 2,400만 원 지원) 처음 시작됐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TMR공장

장수한우공, 배합사료 개발

TMR번식우 11 4900원 · 명품 마블9 9500원... 9월 판매

장수군 장수한우지방공사는 장수한우 TMR(Total Mixed Ration번식), 배합사료(비육) 신제품을 개발했다며 오는 9월 중순경 출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신제품은 장수한우 TMR번식우와 배합사료 개발을 통한 장수한우농가 사료 가격 안정화 및 판매 활성화와 저가격 고품질 원료 활용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개발했다.

개발제품은 장수한우 TMR번식우 II, 배합사료(명품 마블9)로 장수한우 TMR번식우 II는 기존 제품에서 착안했으며, 배합사료는 완전신제품이다. 장수한우 TMR번식우 II는 사료 완전혼합사료로 조사료와 농후사료를 영양소요구량에 맞도록 적절한 비율로 배합한 사료이며, 배합사료(명품 마블9)는 두 종류 이상의 사료원료를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정한 비율로 혼합한 사료이다.

이 제품 추진일정은 장수한우 TMR 번식우 시범생산을 지난 8월 완료로, 장수한우 TMR번식우는 오는 31일 성분검사 및 제품등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위원회 구성)에 의한 사료의 가격 및 판매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결정을 하고, 장수한우 TMR사료관매가격 고시는 9월 6일부터 15일까지 9일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장수한우 TMR사료관매는 9월 18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수한우 TMR사료 가격 결정(안) 번식우신제품 II은 15%인하된 운송비포함 4,900원, 장수한우 배합사료 가격 결정(안) 명품 마블9(신제품)은 운송비포함 9,500원으로 예상된 가격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 로타리클럽, 박용근 회장 취임

국제로타리 3670지구 장수로타리클럽은 최근 제40대-41대 회장 및 임원단 이·취임식을 천천면 월곡리 소재 나뭇 리조트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40대 손재호 회장과 41대 박용근 회장 이·취임식 자리로 3670지구 김홍균 총재, 유기홍 장수군의회 의장, 한규제, 이희수, 오재만 의원을 비롯해 자매클럽 대구 태양로타리클럽과 남원, 무주, 진안, 임실 로타리클럽 회장단 및 장수로타리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은 강철규, 이인호, 김성진 역대회장에게 원로공로패, 강동완 회원 외 3명에게 회원공로패 수여, 장수고등학교 인터랙트 봉사활동 동아리 김윤지 학생 외 5 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10명의 신입회원 입회식을 가졌다.

한편 박용근 회장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교수, 전주한지문화축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산업자원부 장관 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반딧불축제-섣다리 공연

반딧불축제 전통놀이 즐겨요

섣다리 밟기 · 낙화놀이 ·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 기절놀이 등 개최

무주사람들의 흥과 정성이 만드는 전통놀이한마당 섣다리 밟기와 낙화놀이, 기절놀이, 디딜방아 액막이놀이, 솟대세우기 등은 해를 이어오며 무주반딧불축제의 역사가 되고 있다.

10회 축제를 계기로 메인 프로그램이 된 섣다리 밟기(남대천/8.26, 27, 9.1, 2)는 주민들이 직접 섣다리를 설치하고, 전통혼례와 상여행렬을 재연하는 것으로, 올해는 낙화놀이가 더해져 진한 감동을 선사해줄 예정이다. 전통의상을 입고 섣다리를 건너는 체험도 추가됐다.

들나무와 솔가지를 이용해 가교를 놓는 섣다리는 미국의 CNN가 한국에서 꼭 봐야 할 명소 50곳으로 선정해 더욱 유명해졌다.

낙화놀이(줄을 타고 떨어지는 불꽃놀이)는 기존 4회에서 6회까지 횟수를 늘려 진행(남대천/8.26,

27, 29, 30, 9.1, 2)한다. 안성면 주민(금평리 두문마을 낙화놀이 보존회)들이 지난 12회 축제 때부터 재연해 인기를 모으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56호로 선정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물위에서 즐기는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는 한지로 싼 뽕나무와 솟, 소금 모치, 말린 쉰 등으로 만든 낙화봉 2,000여 개를 달고 불을 붙이면 줄을 타고 이어지는 불꽃들이 대금의 선율과 어우러져 바람에 날려 흩어지는 모습이 장관이다.

무주군 부남면 주민들이 전승해 오고 있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41호인 무주부남디딜방아 액막이놀이(예체문화관 주차장 / 8.29)는 무병장수와 풍년을 기원하던 거리기원제로 100여 명이 넘는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춤과 제와 농악놀이를 선보이는 모습이 흥겹다. 제41회 한국민속예술축제에서 문화

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기(旗)절놀이(8.26)는 무주군 무풍면 지역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 놀이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마을의 상징인 농기(旗)로 세배를 주고 받으며 화합을 다졌던 놀이를 재연한 것이다.

솟대세우기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 산의실 솟대세우기는 8월 26일 오전 10시 예체문화관 반디광장에서 진행된다. 무주농악보존회 공연은 8월 26일에는 예체문화관 주차장(주 공연장), 9월 2일과 3일에는 남대천에서 개최된다.

무주반딧불축제 관계자는 "전통 놀이들은 이제 무주반딧불축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전통놀이 재연을 통해 군민들은 화합하고 관광객들은 즐거워하는 모습 속에서 화합축제로서의 무주반딧불축제의 발전 가능성을 본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농업용 클로렐라 보급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21일 유기농 포도, 오미자, 갯잎 등 농가에 시범적으로 농업용 클로렐라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클로렐라는 광합성을 하는 녹조 미

생물로 농산물의 저장성 증대는 물론 당도 향상, 흰가루병 등 병원성 곰팡이균 예방 등 품질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에 진안군은 지난 6월 농업용 자

가 배양기를 설치하고 클로렐라 확대 보급과 기술전파에 힘쓰고 있다.

올해 시범적으로 오미자, 포도, 삼추, 청정묘산 등 작물 재배 농가에 주당 100리터를 생산 공급하고 있어 농가 호응이 좋아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장날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진안고원 청정농산물 판매

진안군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파산업과
063-430-2951